

인쇄문화의 새 지평을 열 때

비전 보이는 곳에 집중적 투자 필요

인쇄문화산업은 지금 최악의 사이클에 접해 있다. 현재의 모든 조건이 그렇고, 미래의 환경 또한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쇄환경이 근본적으로 열악하다는 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단체수의 계약의 종료에 따른 공포감까지 더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 된 일이었다.

필자는 약 2년전 서울인쇄조합의 하계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런 일들을 예고했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당시의 주요 대안들은 순수한 인쇄인의 입장에서 본 기술적, 이론적, 실무적 대안들로서 사업의 특화, 다각화, 창조적 마케팅, 협동화, 협업화 등의 모델들이었는데, 당시 입장이 입장이기에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준비한 것이 평소에도 늘 정책적 대안으로 생각했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안의 초안 연구였다. 법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적절한 시기에 발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홍보 등 그때 그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행히 업계의 호응도 좋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단체장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서 법제정까지 가지는 것이었고, 인쇄 3단체는 이를 공동 사업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사회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물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인쇄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너무 잘아다시피 인쇄란 한 나라의 뿌리문화산업이며, 인쇄가 없이는 역사, 교육, 문화, 수출은 물론 모든 인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내외 각처의 설득이 가능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인구 4천여만 명, 그것도 독서율이 저조한 나라에서 인쇄문화산업이 자생하고 발전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대목에서도 공감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거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듭하면서 국회에서의 공청회도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다시 여기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영위되어온 우리나라 인쇄산업이 최악의 사이클을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환경도 만만치 않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서적인쇄가 줄고, 인쇄 대체 기능이 늘어나고, 특수인쇄가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변화는 가히 예측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쇄는 변화 무쌍한 시대로 가고 있고 제도도 달라

지고 있으며, 새롭게 탄생되는 인쇄의 영역은 인쇄인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한 불확실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든지 살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겠다는 것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물론이고, 시대적 사명감으로 미래 비전을 일구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가 솔선적으로 참여하고 물심 양면의 협조가 이뤄져야겠다는 것이다. '설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방심과 방관은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더욱 비극적인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무력한 각개전투보다는 인쇄단체를 중심점으로 협업과 협동을 통하여 더욱 강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대안도 없는 불만, 불평, 개인이나 기업, 단체, 단체장 간의 이기주의 같은 것도 있었다면 과감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고, 업계의 살길, 백년대계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모두가 함께 투자 정신을 발휘할 때라는 말은 몇 번씩 강조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제 결론은 비전이고, 미래의 새 지평을 열 때인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인쇄 및 인쇄관련인들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다. 남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일로서 방관 방임할 것이 아니라, 솔선과 참여로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일에 투자 정신을 발휘해 줄 때라고 말이다.

본지 발행인